인문논총 82권 2호(2025. 5. 31.), pp. 269~303
[DOI] https://doi.org/10.17326/jhsnu.82.2.202505.269

조선 후기 경기도 중서부 호조벌 일대의 동리(洞里)와 인구 증가 양상*

정다혜**
정요근***

초록 현재의 경기도 시흥시 일대는 18세기 초반 호조벌의 개간 이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지역 경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원래 이 일대는 갯벌이 넓게 분포했던 지역이었으나, 호조방죽의 축조와 농경지의 확대로 인하여 동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급증하였다. 18세기 후반, 호조벌 북쪽 방면의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 일대에서는 1곳 이상의 촌락명 동리를 묶어서 편제한 서수명(序數名)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서수명 동리의 비중이 줄어들고 촌락명 동리가 기본 편제 단위로 설정되면서, 소속 동리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한편, 호조벌 남쪽 방면의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는 18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인구의 증가와 동리의 분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하면, 북쪽의 인천 2개 면 지역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동리가 크게 성장하고 인구가 급증하였다. 동리와 인구의 시기별 변동을 통해,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는 18세기부터 호조벌의 개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천 2개 면 지역에서는 그보다 늦은 19세기에 활발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에서 인구와 동리의 증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시흥, 인천, 안산, 면리제(面里制), 호조벌, 간척

---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시흥시 인문도시사업단이 주최한 제19회 인문주간 학술대회 "역사적 접근으로서의 시흥학: 사회변동과 생태환경"에서 제1저자가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공동 협업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www.kci.go.kr

1.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전국 8도 아래 약 330곳의 군현(郡縣)을 두고 군현 아래에는 면리(面里), 즉 면과 동리(洞里)를 편제하여, 지역 단위로 호구와 토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부세를 거두어들였다.[1] 군현이나 면리의 편제는 부세의 설정이나 지역 유력층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변화의 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생업이나 거주를 위한 지리적 환경의 조건 역시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2] 따라서 조선시대 군현이나 면리의 편제와 그 변화에는 개별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경기도 시흥시의 중앙부 지역은 '호조벌'이라고 부르는 넓은 농경 지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호조벌은 과거 갯벌이 넓게 펼쳐진 지역이었다가, 18세기에 이른바 '호조방죽'이라는 제방을 축조한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농경지로 변모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인천과 안산 두 군현의 경계 지대에 해당하여, 전통적으로 행정이나 산업의 측면에서 두 군현의 중심 지역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도나 비중이 크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었다. 따라서 인구 거주의 밀집도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18세기 초반 진휼

---

1 조선시대 군현 하부 행정의 기본 토대가 되는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에 대한 숙종대의 기록에서는 면리의 편제가 호구 수와 같은 물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一曰 有統有里, 以屬於本面, 面有都尹、副尹各一人° 大面則所統里多, 小面則所統里小, 各隨戶之多寡殘盛而稱之° 以某面第一里第二里, 以至三四五六, 亦隨其分里之多寡° 『숙종실록』 숙종 원년 9월 신해(26일)]. 다만, 숙종대 「오가통사목」과 관련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면리의 수적 변동이 촌락의 사족적 기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은 이해준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이해준(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서울: 민족문화사, p. 37]. 군현의 부세 상황이 면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최근 송양섭과 이유진의 연구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송양섭(2021),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대동문화연구』 11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유진(2024), 「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노동력 동원을 둘러싼 현안과 갈등」, 『古文書硏究』 65, 한국고문서학회].

청(賑恤廳)의 주도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 농경지가 개간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3]

호조벌 일대에는 보통천과 은행천의 두 하천이 흐르고 있다. 보통천은 현재 시흥시 동남부와 안산시의 경계가 되는 산지 능선부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은행천은 현재 시흥시 북부의 대야동 일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보통천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4] 보통천과 은행천 일대는 서해 연안에 접하면서, 간조 때는 갯골을 형성하고 만조 때는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깊숙이 들어오는 만입부(灣入部)의 지형을 갖추었다.[5] 따라서 조선 후기의 대규모 간척 이전에는 바닷물이 두 하천을 따라 내륙으로 깊고 넓게 들어왔다.

조선시대에는 보통천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남쪽에는 안산군(安山郡)이 편제되었다. 그러한 편제는 그 이전 고려 때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보통천 이남의 안산에서는 초산면(草山面)이 호조벌에 걸쳐 있었다. 보통천 이북의 인천에서는 동쪽의 전반면(田反面)과 서쪽의 신고개면(新古介面)[6]이 호조벌에 걸쳐 있었는데, 두 면은 북쪽에서 남쪽 방면으로 흐르는 은행천을 경계로 영역이 나뉘었다. 보통천과 은행천은 계속된 간척으로 인하여 현재는 작은 규모로 축소되었지만, 과거에는 행정 경계와 생활권을 구분하는 주요한 지형 요소로 기능하였다.

호조벌의 개간과 그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양선아의 연구[7]가 대

---

3 조선시대 인천과 안산 일대에서 이루어졌던 간척지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영호(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와 '양선아(2007),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제2부 1장 개간과 토지이용」, 『시흥시사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경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등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2007), pp. 27-28.

5 범선규(2007),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 「제1부 2장 간척사업」, 『시흥시사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경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p. 51.

6 신고개면은 문헌자료에 따라 신현면(新峴面)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편의상 본고에서는 신고개면으로 통일하여 서술한다.

7 양선아(2007), pp. 139-144.

www.kci.go.kr

표적이다. 인천 소래면 지역[8]의 '동리'(洞里)[9] 증가를 다룬 이 연구에서는, 18세기 말 18개에 지나지 않던 소래면의 동리 숫자가 19세기 후반 37개로 급증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간척의 영향이 인천과 안산에서 시기별로 달랐던 점에 주목하여, 안산 지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이미 20세기 동리 편제의 기본 골격이 확인되나 인천 지역에서는 19세기가 되어야 성립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양선아의 연구는 호조벌 일대 개간의 영향을 동리의 신설이나 분화, 집성촌의 형성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안산 지역에 비해 19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는 인천 지역의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던 까닭에, 인천과 안산 지역에서 나타났던 변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호조벌을 끼고 있던 조선 후기의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 그리고 안산 초산면의 3개 면 지역을 중심으로 동리의 신설과 분화뿐만 아니라 인구의 변동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호조벌 북쪽 구역(인천)과 남쪽 구역(안산)의 변화 양상을 수치에 기반하여 더욱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보통천을 경계로 하여 남쪽과 북쪽이 안산과 인천으로 나뉘어졌던 호조벌 일대는 1914년 일제의 전국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호조벌 일대 전체가 시흥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 후기 면리제가 20세기 초반 한일 강제 병합 전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1989년에 시로 승격하여 오늘날까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흥시의 역사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

8 양선아의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인천 소래면은 조선시대에는 신고개면, 전반면, 황등천면이 편제된 지역이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양선아(2007), p. 139'를 참고할 것.

9 면 하부의 지명 단위는 '리'(里), '동'(洞), '촌'(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동리'(洞里)로 통칭한다.

www.kci.go.kr

1장에서는 18세기 후반 이래 20세기 초반까지 동리의 분화와 신설 양상을 고찰하고, 2장에서는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인구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조선 후기 호조벌 일대를 관할했던 인천의 신고개면과 전반면, 그리고 안산 초산면 지역이다. 본고에서는 18~19세기에 편찬된 각종 관찬 지리지(地理志),[10] 정조 13년(1789) 전국 모든 군현의 면별 동리 명칭과 호구 수치를 기록한 자료인 『호구총수』(戶口總數), 한일 강제 병합 직전인 1910년 5월 기준의 호구 정보가 기재된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1]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밖에도 조선시대 인천과 안산 관련 고문서 자료 등도 폭넓게 활용하였다.

2. 동리 수 증가와 '촌락명 동리'로의 분화

2.1.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변동 양상

조선 후기 호조방죽의 축조와 호조벌의 개간으로 대표되는 인천과 안산 경계 지대의 경관 변화는 인구와 동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인천의 면 편제는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감리서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인천 부내면(府內

10 특히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인천과 안산 지역의 주요 관찬 지리지로는, 고종 8년(1871)에 편찬된 『京畿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12177-v.1-6), 고종 36년(1899)에 편찬된 『仁川府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915.12-In2b)와 『安山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古915.12-An81g) 등이 있다.

11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에 간행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朝25-33-1)은 1912년 1월 1일 기준의 전국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명칭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박병철(2019),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지명학』 30, 한국지명학회, pp. 121-122].

www.kci.go.kr

面)이 구읍면(舊邑面)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소면에 속해 있던 개항장 일대가 새롭게 부내면이 되어 다소면에서 분리되었다. 그리고 옛 부내면 남쪽의 원우며면(遠又旀面)은 서면(西面)으로 명칭이 바뀌었다.[12]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면 편제의 기본 틀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호조벌을 끼고 있었던 신고개면과 전반면은 개항의 파고 속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의 기초 하부 단위를 이루는 동리의 경우에는 신설과 분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세 시기로 나누어 인천의 면별 동리 편제와 구성을 정리하면 [표 1]의 내용과 같다. 18세기 후반은 1789년의 상황을 반영한 『호구총수』, 19세기 후반은 1871년의 상황을 반영한 『경기읍지』, 20세기 초반은 1912년의 자료인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기록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이하 편의상 『호구총수』는 1789년 자료, 『경기읍지』는 1871년 자료,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은 1912년 자료로 지칭한다. [표 1]에서는 인천의 관할 범위 중에서 자료별로 면 편제의 설정 기준에 차이가 큰 영종면(永宗面)과 용유면(龍游面), 덕적면(德積面) 등 섬 지역, 그리고 인천의 오랜 월경지(越境地)로서 1906년에 남양으로 소속이 바뀌는 이포면(梨浦面) 등은 제외하였다.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경우에는 시기별 소속 동리를 모두 기재하였다.

세 자료에 수록된 면 하부의 동리 지명은 '동'과 '리'의 명칭이 대부분인데, '촌'의 명칭이 붙거나 별다른 단위 명칭이 없는 지명도 일부 확인된다. '동'과 '리' 중에서는 '리'의 명칭을 가진 지명이 더 많이 확인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지역 9개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기가 지날수

12 1903년에는 기존의 부내면이 구읍면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존의 다소면 중에서 개항장이 있던 제물포 일대의 좁은 범위가 새로이 부내면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원우며면은 서면이 되었다[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2002), 『인천광역시사 제1권: 자연환경과 지리』, 경기: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pp. 38, 59].

www.kci.go.kr

[표 1] 인천 지역 9개 면의 시기별 동리 숫자

면	1789년	1871년	1912년
新古介面 (新峴面)	5 (一里 二里 三里 四里 浦村)	13 (浦村里 大阿洞 芳谷里 山井里 新村里 場基里 後陰里 矢山里 多安里 寺洞 黔巖里 杏亭里 載江洞)	12 (二里 三里 浦洞 大也洞 芳谷里 山井里 新村里 蛇川里 倉洞 古基里 竹院 局洞)
田反面	7 (一里 二里 三里 四里 五里 六里 七里)	15 (陽地里 家垈里 長樂洞 梅着里 栗島里 道頭里 江倉里 儉衣洞 陵內里 無恥川里 桃李峴 栢田里 新村 鞍峴里 鎭村)	15 (一里陽支里 一里家垈洞 一里松內洞 二里長樂洞 二里梅着里 二里栗洞 三里道頭里 三里江倉里 四里 五里儉義里 六里 七里陵內洞 七里中洞 七里新興洞 七里銀杏洞)
黃等川面	6	9	7
府內面	9	6	8 (舊邑面으로 개칭)
遠又旀面	6	11	5 (西面으로 개칭)
多所面	10	9	26 (다소면과 府內面으로 분할, 다소면 14, 부내면 12)
朱安面	4	4	7
南村面	4	11	8
鳥洞面	3	9	9
합계	55	92	116

※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신고개면과 전반면은 소속 동리 모두 기재

록 동리의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789년 자료에 수록된 55개 동리가 1871년 자료에는 92개, 1912년 자료에는 116개로 늘어났다.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인구의 증가와 동리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면에 따라 동리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 조사한 전체 9개 면의 동리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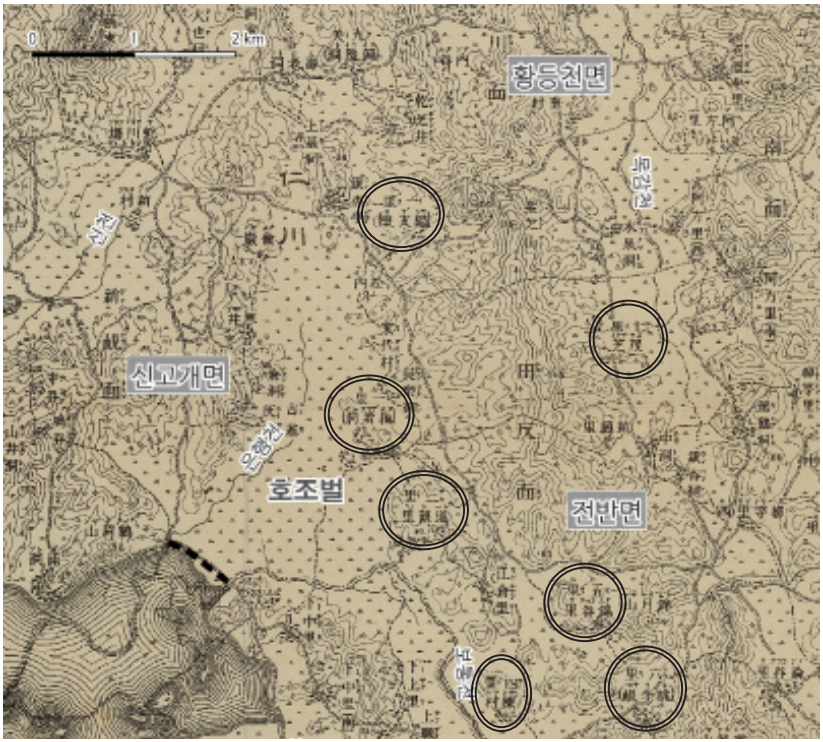
www.kci.go.kr

첫 번째로는 18~19세기에 동리의 개수가 증가한 이후, 증가한 동리가 큰 변동 없이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 지역인 신고개면과 전반면 지역이 이 사례에 포함되며,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인천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된 사례로서, 부내면(府內面)과 다소면(多所面)을 들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두 면 사이에는 차이점이 확인된다. 과거 인천의 읍치가 있었던 부내면의 경우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개항장 쪽으로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 나타났던 반면, 개항장 일대를 관할했던 다소면 지역은 개항 이후 다소면과 부내면으로 분할되어 동리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는 원우며면(遠又旀面)과 같이 18~19세기에 동리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20세기 초반에는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황등천면(黃等川面)과 같이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동리 숫자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주안면(朱安面)과 같이 18~19세기에 동리 숫자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세기 초반에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사례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주요 검토 대상인 호조벌 일대의 신고개면과 전반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섯 유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후일을 기약한다.

우선 신고개면과 전반면 동리 편제의 시기별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특징으로는 18세기 후반에 '1리'(一里)나 '2리'(二里) 등 서수로 표현된 동리(이하 '서수명 동리') 명칭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두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 지역에서도 서수명 동리의 편제가 폭넓게 확인되고 있다. 이는 주변 다른 군현과 구별되는 조선시대 인천 지역 동리 구성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인천 지역에서 면 아래 기초 단위로서의 서수명 동리는 기본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개별 촌락을 기반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1789년과 1871년, 1912년 자료 사이의 동리 숫자 변동과 동리의 변화 양상을 통

www.kci.go.kr



[그림 1] 제2차 조선지형도의 옛 인천 전반면 일대(1909~1911년 측도)

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동리 숫자는 1789년에 5곳과 7곳에서 1871년에 13곳과 15곳으로 급증했다가, 1912년에는 12곳과 15곳이 되어 1871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동리 숫자로만 보면 1789년과 187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리의 명칭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1789년 자료에서는 두 면 모두 소속 동리가 서수명 동리로 표기되었던 반면, 1871년 자료에서는 서수명 동리 대신 '명칭에 촌락명이 들어간 동리'(이하 '촌락명 동리')로 표기되었다.[13] 동리 수의 급증과 촌락명 동리로의 기재 방식 변화를 통해 서

13 양선아는 18세기 후반 이후 인천 소래면 지역에서 나타난 동리 수 증가와 촌락명 동리 표기로의 변화를 두고 개별 촌락 단위 사회의 분화 또는 정립을 보여준다고 간략하게 언

수명 동리 아래에는 1개 이상의 촌락명 동리가 소속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서수명 동리와 촌락명 동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1912년 자료의 전반면 소속 동리 명칭에서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12년 자료의 전반면 소속 동리는 서수명과 촌락명이 결합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의 서수명 동리가 대략 1~4곳의 촌락명 동리를 포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세기 초반에 일제에 의해 제작된 이른바 '제2차 조선지형도'(1909~1911년 측도)[14]에서는 전반면 관할 1리부터 7리까지 서수명 동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그림 1] ◎ 표시 참고).[15] 이를 통해 서수명 동리는 기본적으로 인호의 파악을 목적으로 편제된 단위라 하더라도, 이웃한 1개 이상의 촌락을 묶어서 편제한다는 지리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촌락명 동리의 표시 없이 서수명 동리로만 기재된 1789년 자료의 전반면 소속 1~7리의 위치 역시 1912년 자료의 1~7리의 위치와 동일했을 것이다.

1789년 자료보다 1871년 자료에서 동리 숫자가 급증한 기본적인 원인은 면 아래의 기초 단위로서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가 기재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면 아래의 기초 단위로 기존의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를 표기한 배경에는, 촌락명 동리로 표현된 개별 촌락이 인구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이전보다 규모가 더 성장하여 독자성이 강화되었던 측면

급한 바 있으나, 촌락 단위의 편제 양상 변화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선아(2007), p. 140'를 참고할 것.

14 제2차 조선지형도의 서지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박선영(2021),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3(2),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3-14'를 참조할 것.

15 다만 [그림 1]에는 1리가 두 곳 표시되어 있고 2리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표 1]의 1912년 전반면 소속 동리 명칭과 비교하면, 두 곳의 1리 중에서 장락동(長樂洞)과 매착동(梅着洞) 일대에 표시된 1리가 2리의 오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신고개면과 전반면 지역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고개면의 경우, 1789년 자료에는 1리부터 4리까지 4개의 서수명 동리와 포촌(浦村) 등 모두 5개의 동리가 기재되었다. 포촌이 5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1~4리 중에서 분화된 동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1871년 자료에서는 신고개면 소속 동리 13곳 중에서 서수명 동리가 모두 사라지고 포촌과 같은 촌락명 동리로 바뀌어 표기되었다. 이것으로만 보면 인천 신고개면의 동리 단위 편제는 1789년 자료의 서수명 동리 단위가 1871년 자료에는 모두 촌락명 동리 단위로 변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1912년 자료에 따르면, 신고개면 소속에는 서수명 동리와 촌락명 동리가 섞여서 12곳의 동리로 표현되었다. 서수명 동리로는 1789년 자료의 1~4리 중 2리와 3리가 남아 있었고, 1리와 4리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1871년 자료의 13개 촌락명 동리 중에서 1912년 자료의 촌락명 동리로 계승되지 않는 곳 가운데, 1789년 자료의 1리와 4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곳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1789년 자료의 신고개면 소속 1~4리와 같은 서수명 동리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1곳 또는 복수의 일반 촌락을 아우르는 단위였음을 말해준다. 당초에는 서수명 동리가 복수의 촌락에 거주하는 인호를 합쳐서 설정한 단위에서 기원했을지라도, 19세기부터는 이미 촌락명 동리와 병칭해서 분류될 정도로 동리가 세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사실은 전반면의 사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반면의 경우, 1789년 자료에는 1리부터 7리까지 7개의 서수명 동리만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1871년 자료에는 서수명 동리가 모두 사라지고 15개의 촌락명 동리로 바뀌어 기재되었다. 이는 앞서 신고개면 사례에서와 같이 전반면의 면 하부 동리 편제의 기본 단위가 1789년 자료에서는 서수명 동리였다가 1871년 자료에서는 촌락명 동리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1912년 자료에도 전반면 소속으로 15개 동리가 기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서수명 동리와 촌락명 동리의 관계가 명확히 잘 드러나고 있다. 15개

www.kci.go.kr

[그림 2] 제3차 조선지형도의 옛 인천 전반면 일대(1910년대 측도)

의 동리 중 13개 동리가 서수명과 촌락명이 결합된 형태로 표기되었으며, 나머지 2개 동리는 서수명 동리(4리, 6리)만으로 기재되었다. 13개 동리 중에서는 1리 계열과 2리 계열이 각각 3곳, 3리 계열이 2곳, 5리 계열이 1곳, 7리 계열이 4곳이다.

1871년 자료의 전반면 15개 동리 중 9개 동리(양지리, 가대리, 장락동, 매착리, 율도리, 도두리, 강창리, 검의동, 능내리)는 1912년 자료의 9개 동리(1리양지리, 1리가대동, 2리장락동, 2리매착리, 2리율동, 3리도두리, 3리강창리, 5리검의리, 7리능내동)와 명칭이 이어지므로, 그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1871년 자료의 나머지 6개 동리(무치천리, 도리현, 백전리, 신촌, 안현리, 진촌)와 1912년 자료의 나머지 6개 동리(1리송내리, 4리, 6리, 7리중리, 7리신흥리, 7리은행동)는 명칭만으로 계승 관계를 찾기 어렵다. 다만 1871년 자료의 6개 동리 중 신

촌이 1912년 자료의 6개 동리 중 7리신흥리로 계승되었다고 파악한다면, 1871년 자료의 나머지 5개 동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1912년 자료의 4리와 6리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후대로의 계승 관계가 불분명한 1871년 자료의 5개 동리도 [그림 1]의 제2차 조선지형도와 [그림 2]의 이른바 '제3차 조선지형도'(1910년대 측도)[16]를 통해서, 그 지리적 위치와 함께 1912년 자료의 동리와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2차 조선지형도에서는 인천 전반면 지역에서 서수명 동리와 촌락명 동리가 병칭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1912년 자료와 기재 양식이 상당히 비슷하다. 한편, 1914년 지방 행정제도 개편이 반영된 제3차 조선지형도에서는 서수명 동리가 표기되지 않았다.

[그림 1]의 제2차 조선지형도에 따르면, 1871년 자료의 5개 동리 중 진촌과 도리현은 1912년 자료의 4리와 6리로 각각 이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치천리(무지리)[17]가 7리에 소속되었음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안현리는 제3차 조선지형도에서는 양지리와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안현리가 양지리와 같은 1리에 소속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2] ◎ 표시 참고). 1912년 자료에서 1리가 결합된 촌락명 지명 중에 계승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1리송내리가 1871년 자료의 안현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1914년 지방 행정구역 개편 때 1리의 송내동과 가대동, 양지리가 모두 통합되어 안현리가 되었다는 점[18]도 안현리가 1리송내리와 연결되었다는 주요 근거가 된다. 한편,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1871년 자료의 백전리는 역시 그 계승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1912년 자료의 7리중동 및 7리은행동으로 분화되어 계승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1912년 전반면 소속 촌락명 동리는

16 제3차 조선지형도의 서지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박선영(2019),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특징: 국내외 주요 소장처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p. 97'를 참조할 것.

17 명칭상 제3차 조선지형도에 표기된 무지리(茂芝里)가 1871년의 무치천리(無恥川里)와 같은 지명으로 판단된다.

18 越智唯七 編(1917), 『新舊府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pp. 58–59.

www.kci.go.kr

1789년 전반면 소속 서수명 동리의 지리적 범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의 제2차 조선지형도와 [그림 2]의 제3차 조선지형도를 보면, 6~7리 계열을 제외한 1~5리 계열의 촌락명 동리 10곳이 대부분 보통천과 은행천 연안의 호조벌을 끼고 위치했음이 확인된다. 이는 1789년에서 1871년 사이에 전반면 소속 촌락명 동리들의 성장에 호조벌의 개간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즉, 전반면 지역에서는 1720~21년 호조방죽의 축조 이후 한참이 지난 1789~1871년 사이에 개별 촌락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고개면의 상황도 이와 대동소이했다고 여겨진다.

시기가 내려갈수록 서수명 동리는 촌락명 동리로 대체되면서 점차 사라졌을 것이다. 인천 전반면 소속 동리의 경우에도, 1871년 자료에서는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가 기재되었다. 그러나 1912년 자료에서는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서수명 동리가 촌락명 동리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되살아나 병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수명 동리는 인위적 편제 단위로서의 성격은 이미 사라졌고, 촌락명 동리의 계통을 명확히 보여주는 일종의 상위 동리 단위로 활용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19세기에는 민간에서도 서수명 동리를 촌락명 동리의 상위 단위로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개인 간의 토지 매매문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문서 중에는 19세기 후반 인천 신고개면의 종자(從字) 답(畓) 매매문기 3점[19]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논이 위치한 장소에 대하여 철종 13년(1862)의 문서에서는 서수명 동리인 '신고개면 2리'로 기재한 바 있다. 그런데 고종 1년(1864)과 고종 30년(1893)의 문서에서는 '신고개면 2리 전산리(箭山里)'로 표

19 3점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晉允大土地賣買文記」(178068); 「崔正福土地賣買文記」(178073); 「張生員奴崔長福土地賣買文記」(178074).

www.kci.go.kr

기하였다. 즉 서수명 동리 아래에 촌락명 동리를 추가하여, 해당 논의 위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20] 당시 사람들은 신고개면 하부에 서수명 동리인 '2리'와 촌락명 동리인 '전산리'를 모두 생활 속에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시기가 내려올수록 촌락명 동리의 표기가 점차 늘어나면서, 서수명 동리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정리하면, 조선 후기 인천의 신고개면과 전반면에서는 동리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두 면에서 18세기 후반(1789년)에는 1곳 이상의 촌락명 동리를 묶은 서수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동리 단위로 설정되었으나, 19세기 후반(1871년)이 되면 서수명 동리로 묶였던 촌락명 동리 하나하나가 기본 편제 동리 단위로 성장하였다. 다만 20세기 초반(1912년)까지도 촌락명 동리 앞에는 서수명 동리가 병칭되어 서수명 동리 사용의 유습이 남아 있었으나, 당시의 서수명은 인호 편제의 기준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촌락명 동리의 계통을 밝혀주는 기능만 지녔다. 이미 19세기부터는 서수명 동리 대신 더 작은 단위인 촌락명 동리의 사용이 관과 민간 양쪽에서 모두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는 곧 1789~1871년 사이에 서수명 동리보다 촌락명 동리를 기준으로 한 더욱 세분된 지역 기초 단위의 설정이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면의 사례에 따르면, 촌락명 동리의 과반(1~5리 계열 10곳)이 호조벌을 끼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전반면 일대에서는 호조벌 개간에 따른 촌락의 성장이 호조벌 개간 직후인 18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늦은 1789~1871년 사이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789년과 1871년, 1912년의 전반면 소속 동리 구성 사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 1~7리로 대표되는 서수명 동리의 편제가 1개 이상의 촌락명 동리의 기반 위에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789년 자료와 1912년 자료에서는 모두 서수명 동리의 숫자가 7개(1~7리)로 같게 기재되었던 까

20 전산리는 1871년 자료의 신고개면 소속 동리 중에서 시산리(矢山里)와 같은 곳이라고 판단된다. 전(箭)과 시(矢)가 모두 화살을 뜻하기 때문이다.

www.kci.go.kr

닭에, 서수명 동리가 결합된 촌락명 동리(1912년 자료)의 지리적 위치는 서수명 동리만을 기재한 1789년 자료의 시점에도 큰 차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전반면 전체를 7개의 서수명 동리로 나누었던 1789년 자료의 설정이 1912년 자료 때까지도 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수명 동리만 기재된 1789년 자료의 시점에도, 1912년 자료에 서수명 동리로 묶인 형태의 소규모 촌락명 동리가 상당 비율로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해당 동리들은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1871년 자료와 1912년 자료에서는 면 아래의 기본 편제 단위로 기재될 수 있었다.

2.2. 안산 초산면의 변동 양상

호조벌의 중앙부를 흐르는 보통천의 북쪽 지역은 조선 후기에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관할 영역이었던 것에 반해, 보통천의 남쪽 지역은 안산 초산면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의 면 편제는 개항에 따른 중심지의 이동과 관계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산 지역에서도 1789년 자료의 6개 면이 1871년 자료와 1912년 자료에 모두 그대로 안산 소속의 면으로 유지되었다. 즉 안산 지역에서는 1789년부터 1912년 사이에 면 편제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원래 광주의 영역이었던 성곶면과 북방면, 월곡면이 1906년 월경지와 견아상입지 정리 때에 안산 소속으로 옮겨져서,[21] 1912년에는 안산 소속 면의 개수가 기존의 6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3개 면의 소속 변경으로 안산의 영역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면 편제 자체의 전면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면 하부에 편제된 동리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21 「官報」(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289) 光武 10년 9월 28일 제3570호 附錄 勅令 제49호.

www.kci.go.kr

[표 2] 안산 지역 6개 면의 시기별 동리 숫자

면	1789년	1871년	1912년
草山面	10 (牧甘里 論知谷里 勿項洞里 上職串里 廣石里 中職串里 下職串里 下職串中里 下職串下里 豆毛谷里)	13	14 (牧甘里 論谷里 物旺里 上職里 廣石里 中職里 下上里 下中里 下下里 鳥南里 祭廳里 栗浦里 山峴里 櫝谷里)
仍火面	5	8	8
馬遊面	9	9	12
郡內面	9	9	11
瓦里面	11	10	14
大月面	4	4	4
합계	48	53	63

※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초산면은 소속 동리 모두 기재함.

필요가 있다. [표 2]에서는 1789년 자료(『호구총수』)와 1871년 자료(『경기읍지』), 1912년 자료(『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안산 소속 6개 면의 관할 동리 숫자를 정리하였다. 특히 본고의 주요 분석 대상인 초산면의 경우에는 『호구총수』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실린 소속 동리를 모두 기재하였다. 다만 『경기읍지』의 경우에는 안산의 면별 소속 동리가 수록되지 않고 동리 숫자만 표시했던 관계로, 1871년 단계의 상황을 반영한 동리 목록은 복원이 불가능하다.

안산 지역 6개 면의 경우에는 동리 숫자가 증가하기는 하나, 앞서 인천 지역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하였다. 1789년과 1871년 사이에는 안산의 전체 동리 숫자가 48곳에서 53곳으로 5곳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1912년 자료에서는 안산 6개 면에 63개의 동리가 기재되어, 1789년의 48곳 대비 31.3%의 증가율이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표 1]에 정리된 바처럼 같은 기간에 55곳에서 116곳으로 111.0% 증가한 인천에 비하면, 안산의 증가율은 훨씬 낮았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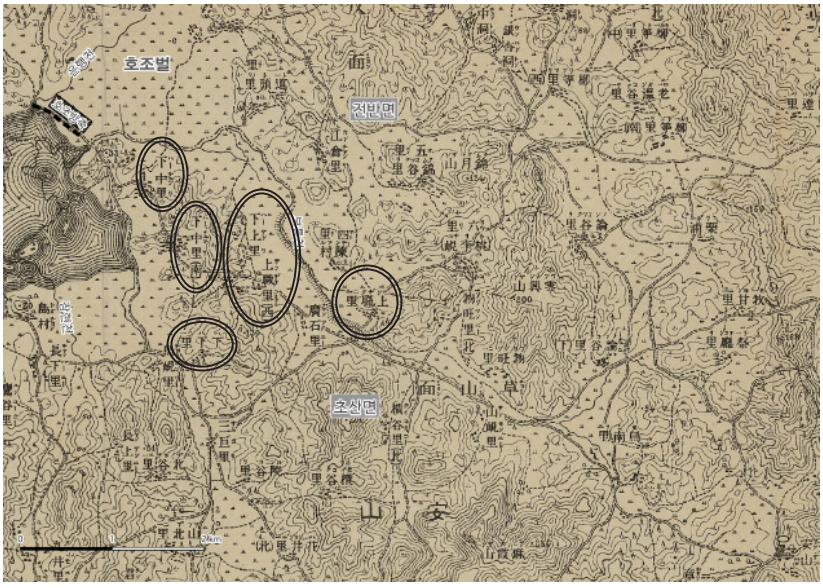
1789~1912년 사이에 확인되는 6개 면의 면별 동리 숫자 변동도 안산 전체의 변동 경향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월면(大月面)은 세 시기 모두 소속 동리가 4곳으로 변화가 전혀 없으며, 나머지 면들에서도 시기별로 1~2곳 정도의 증감만이 확인될 뿐이다. 다만 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1789~1871년 사이에는 초산면과 잉화면(仍火面)에서 상대적으로 동리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초산면은 10곳에서 13곳으로, 잉화면은 5곳에서 8곳으로 늘어났다. 1871~1912년 사이에는 마유면(馬遊面, 9곳→12곳)과 와리면(瓦里面, 10곳→14곳)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확인되나, 같은 시기 초산면 지역의 동리 증가(13곳→14곳)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안산에서는 인천과는 달리 서수명 동리가 면 아래의 기초 동리 단위로 기재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천에서는 1789년 자료에서 서수명 동리의 존재가 다수 기재되었으며, 1912년 자료에도 서수명 동리 지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안산에서는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만이 문헌자료에 기재되었다.[22] 이웃한 두 군현에서 동리 기재 방식에 이렇듯 큰 차이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23]

한편,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동리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인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동리의 신설 또는 기존 동리의 분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동리의 신설과 기존 동리의 분화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명칭과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완전히 신설된 동리인지 기존 동리의 분화로 발생한 동리인지를 유추할 수

22 1912년 자료에 따르면, 안산 성곶면에 1리나 2리와 같은 동리 편제가 보이나, 성곶면은 본래 광주 소속이었다가 1906년에 안산으로 편입된 곳으로서 전통적으로 안산에 속했던 지역은 아니었다.

23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경기도 지역의 동리 지명은 서수명 동리보다 촌락명 동리로 기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수명 동리는 1곳 이상의 촌락명 동리를 묶어서 호구(戶口)를 파악하는 단위로 여겨진다. 세조 6년(1460) 이래 도호부가 되어 상대적으로 꽤 높은 읍격을 지녔던 인천의 경우, 굳이 1789년 자료에 촌락명 동리 대신 보다 큰 범위인 서수명 동리를 기초 단위의 동리 지명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 제2차 조선지형도의 옛 안산 초산면 일대

있다. 1789~1912년 사이에 나타나는 안산 초산면 지역의 사례를 통해 안산 지역의 동리 분화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89년 자료에는 안산 초산면 소속으로 목감리(牧甘里), 논지곡리(論知谷里), 물항동리(勿項洞里), 광석리(廣石里), 상직곶리(上職串里), 중직곶리(中職串里), 하직곶리(下職串里), 하직곶중리(下職串中里), 하직곶하리(下職串下里), 두모곡리(豆毛谷里) 등 10곳의 동리가 기재되었다.[24] 그런데 1912년 자료에는 목감리(牧甘里), 논곡리(論谷里), 물왕리(物旺里), 광석리(廣石里), 상직리(上職里), 중직리(中職里), 하상리(下上里), 하중리(下中里), 하하리(下下里), 조남리(鳥南里), 제청리(祭廳里), 율포리(栗浦里), 산현리(山峴里), 궤곡리(櫃谷里) 등 14개 동리[25]로 늘어났다. 1912년 자료의 14개 동리는 [그림 3]의 제2차 조

24 『호구총수』 경기 안산.

25 朝鮮總督府 編,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pp. 72-73.

www.kci.go.kr

선지형도에서 모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목감리, 논지곡리(논곡리), 물항동리(물왕리), 광석리, 상직곶리(상직리), 중직곶리(중직리), 하직곶리(하상리), 하직곶중리(하중리), 하직곶하리(하하리) 등 9곳은 1789년과 1912년 사이에 그대로 계승되는 동리 사례들이다. 즉, 1789년 자료의 10개 동리 중 9곳이 그대로 1912년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789년 자료의 10개 동리 중에 유일하게 두모곡리(豆毛谷里)만이 1912년 자료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두모곡리는 그 명칭에 곡(谷), 즉 골짜기가 들어가는 점을 볼 때, 해안보다는 내륙 지대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제2차 조선지형도([그림 3] 참고)나 제3차 조선지형도를 통해 살펴보면, 1789년 자료의 동리와 중복되지 않는 1912년 자료의 동리 5곳(조남리, 제청리, 율포리, 산현리, 궤곡리)은 모두 내륙 지대의 입지적 특징을 지녔음이 확인된다. 모두 호조벌과는 관계가 없는 동리들이다. 두모곡리는 이들 동리 중 1곳의 전신이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두모곡리의 후신 동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동리는 1789년에서 1912년 사이에 새로이 신설된 동리로 파악할 수 있다. 이 4개 동리의 명칭이나 지리적 위치로 보면, 모두 기존 동리가 분화된 사례라기보다는 새롭게 생겨난 사례로 분류하는 편이 타당하다. 비록 1871년 자료에서는 초산면 소속의 동리 명칭들을 알 수 없으나, 동리 개수는 13곳으로 기재되어 있다. 1789년 자료의 10곳보다 3곳이 많고, 1912년 자료의 14곳보다 1곳이 적다. 이는 1912년 자료의 동리가 대부분 이미 1871년 단계에도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1789~1912년의 기간에 안산 초산면에 신설된 동리들은 모두 호조벌과는 관계가 없는 입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산 초산면에서는 1789년 이전에도 이미 기존 동리의 분화를 통해 동리가 늘어난 정황도 확인된다. 이는 1789년 자료의 상직곶리, 중직곶리, 하직곶리, 하직곶중리, 하직곶하리 등의 5개 동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 명칭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5개의 동리 명칭은 직곶(職串)에서 유래하

www.kci.go.kr

였다. 직곶은 18세기 초반 호조방죽이 축조되기 이전 호조벌 일대에 갯벌이 넓게 펼쳐졌을 때, 동쪽의 보통천 물줄기와 서쪽의 장현천 물줄기 사이에 반도 형태로 위치하여 북쪽 방면으로 튀어나왔던 지역을 지칭했던 지명이다. '곶'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이다. 따라서 과거 호조벌 개간 이전 직곶 일대의 지형은 반도의 끝 지점으로서 '곶'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하였다. 직곶의 '직'은 벼슬이나 관직을 의미하는 까닭에, 직곶은 벼슬고지 또는 베실고지로 부르기도 한다. '곶'은 다시 '곳'이나 '곡'으로 음이 바뀌었으므로, 옛 직곶 일대를 부르는 후대의 지명인 관곡(官谷) 또한 직곶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26]

명칭상으로 보면 상직곶리와 중직곶리, 하직곶리는 직곶리가 3개 동리로 분화된 지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789년 자료에는 이 3곳의 동리 명칭이 모두 실려 있으므로, 분화의 시점은 1789년 이전 어느 때였다. 그런데, 1789년 자료에는 하직곶리 이외에 하직곶중리와 하직곶하리도 기재되어 있다. 하직곶중리와 하직곶하리의 존재를 감안하면, 하직곶리는 '하직곶상리'를 지칭했음이 분명하다. 즉 1789년 이전에 이미 직곶리가 상직곶리와 중직곶리, 하직곶리로 나뉘어졌고, 하직곶리는 다시 하직곶상리(하직곶리), 하직곶중리, 하직곶하리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고). 이렇게 직곶리가 분화된 5개의 리는 1912년 자료에도 그대로 확인된다. 1912년 자료에는 상직리와 중직리, 하상리, 하중리, 하하리가 기재되어 있어서, '직곶'이 들어가는 1789년 자료의 동리 지명 5개가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도 이 일대에는 법정동으로서 하상동과 하중동이 존속하고 있다.[27]

---

26 직곶의 지명 유래와 관련된 이상의 서술은 '양선아(2007), pp. 142-144'와 '정요근(2025), 「시흥의 옛 지명 연성(蓮城)과 강희맹(姜希孟)의 전당홍(錢塘紅) 이야기」, 『강희맹의 삶과 시흥』, 시흥문화원, pp. 256-258'를 참조하였음.

27 직곶리의 분화와 관련된 이상의 서술은 '양선아(2007), pp. 142-144'와 '정요근(2025), pp. 283-284'를 참고하였음.

www.kci.go.kr

호조방죽의 축조 이전부터 보통천 연변의 직곶 일대에서는 소규모의 간척이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호조방죽의 축조를 계기로 호조벌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간되었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28] 그렇게 본다면 안산 초산면 소속 직곶 일대의 동리 분화는 호조방죽 축조 이전부터 서서히 시작되다가 18세기 호조방죽의 축조와 호조벌의 개간을 통해 가속되었다고 여겨진다. 그에 따라 1789년 자료에는 당시에 분화된 동리들이 수록되었다. 즉, 1789년 자료에 나타난 직곶 일대 동리 분화의 흔적은 1720~21년 호조방죽 축조 이전은 물론, 이후에 진행되었던 호조벌 개간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인천 전반면의 사례를 통해 호조벌 북쪽 지대에서는 1789~1871년에 동리의 성장이 뚜렷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호조벌 남쪽 지대의 안산 초산면 사례에서는 1789년 이전에 동리의 분화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조방죽 축조 이후 보통천 이남의 호조벌 남쪽 지대에서 먼저 활발히 개간이 이루어졌고, 호조벌 북쪽 지대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야 개간의 성과가 문헌자료상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조선 후기 호조벌 일대 지역에서는 동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에서는 1789~1871년 사이에 동리의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면, 안산 초산면에서는 1789년 이전에 이미 동리의 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이후에는 20세기 초반까지도 동리의 숫자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3개 면은 모두 1720~1721년 호조방죽의 축조와 그에 따른 호조벌 개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다. 동리의 분화 시점으로 볼 때, 개간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는 보통천 이남과 이북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보통천 이남의 안산 지역에서는 호조방죽의 축조 후 얼마 지나지

28 호조벌 일대의 개간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양선아(2007)'와 '이영호(2018)', '김한빛(2024),「1910년대 초반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 양상」,『인문논총』8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정요근(2025)'를 들 수 있다.

www.kci.go.kr

않은 18세기에, 보통천 이북의 인천 지역에서는 조금 더 늦은 19세기에 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인구 증가의 추세와 지역별 차이

오래전부터 보통천과 은행천 일대에서는 소규모의 간척이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조선 후기인 18세기에 이르러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1720~1721년 진휼청 당상(堂上) 민진원(閔鎭遠)의 주도로 진행된 석장포(石場浦) 제방 축조 사업, 즉 호조방죽의 축조 사업이었다. 이때 만들어진 제방은 진청신언(賑廳新堰)이나 호조방축(戶曹防築)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호조방죽은 호조방축에서 나온 말이다. 또한, 제방 축조로 인해 생겨난 간척지는 석장둔(石場屯)이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호조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29] 호조방죽의 축조로 인하여 인천과 안산의 경계 지대에서는 갯벌이 농경지로 변모하는 대대적인 경관의 변화가 생겨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통천 남쪽의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는 호조방죽의 축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세기에 이미 호조벌을 끼고 있는 지대에 동리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천 북쪽의 인천 전반면과 신고개면 지역에서는 19세기에 개별 동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즉 호조방죽의 축조와 호조벌의 개간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동리 증가는 안산 지역과 인천 지역 사이에 적어도 수십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동리 증가의 모습이 해당 지역의 인구 변동을 통해서도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 인천과 안산 경계의 석장둔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이영호(2018), pp. 66-77'를 참고할 것.

www.kci.go.kr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인천과 안산의 면별 인구가 기재된 자료로는 『여지도서』와 『호구총수』, 그리고 『민적통계표』를 들 수 있다. 『여지도서』는 1759년[30]의 호구 수치, 『호구총수』는 1789년의 호구 수치, 『민적통계표』는 1910년의 호구 수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앞서 동리 숫자의 변동을 분석할 때 활용했던 1871년 편찬 『경기읍지』에는 면별 인구 수치 기록이 담겨 있지 않다. 1899년에 편찬된 읍지류의 경우, 「안산군읍지」에는 면별 인구 수치가 담겨 있으나 「인천부읍지」에는 면별 인구 수치가 실려 있지 않다. 이에 다음에서는 1759년 자료(『여지도서』)와 1789년 자료(『호구총수』), 그리고 1910년 자료(『민적통계표』)의 호구 수치 기록을 통하여,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 그리고 안산 초산면의 인구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자료에 실린 구(口) 수가 조사 당시의 인구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면별 인구 수치의 규모와 시기별 변동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세 시기의 면별 인구 수치 기록을 정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먼저 인천 지역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59년에는 인천도호부 전체 인구 9,932명 중에서 신고개면 인구가 1,053명(인천 전체의

[표 3]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 호조벌 일대 면별 인구 상황

행정구역	1759년(『여지도서』)		1789년(『호구총수』)		1910년(『민적통계표』)	
인천 신고개면	1,053	1,826	1,303	2,280	2,316	4,041
인천 전반면	773		977		1,725	
인천도호부(전체)	9,932		14,566		43,762	
안산 초산면	1,548		2,088		2,639	
안산군(전체)	10,090		11,926		21,742	

30 ‘『여지도서』 경기도 인천도호부 방리’에 따르면 인천의 면별 호구 수치는 기묘년의 호적에 따랐다고 한다. 기묘년은 영조 35년(1759년)이다. 안산의 면별 호구 수치의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역시 1759년으로 간주한다.

www.kci.go.kr

10.6%), 전반면 인구가 773명(인천 전체의 7.8%)이었으며, 두 면의 인구는 모두 1,826명(인천 전체의 18.4%)이었다. 1789년이 되면 인천 전체 1만 4,566명 중에서 신고개면이 1,303명(8.9%), 전반면이 977명(6.7%)이었다. 두 면의 인구 합은 2,280명(인천 전체의 15.7%)으로서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의 비중은 축소되었으나, 두 면의 평균 인구 증가율은 24.9%(신고개면 23.7%, 전반면 26.4%)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다만 같은 시기 인천 전체의 인구 증가율(46.7%)이나 이웃한 안산 초산면의 인구 증가율(34.9%)과 비교하면, 두 면의 평균 인구 증가율(24.9%)은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평균 인구 증가율 24.9%는 결코 낮다고 치부할 수 없다. 인천 부내면과 그 주변의 면들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 즉 남촌면(5.9%)과 주안면(-24%), 조동면(4.5%) 등에 비해서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31] 신고개면은 은행천의 서쪽 천변, 전반면은 은행천의 동쪽 천변을 끼고 있다. 호조벌을 끼고 있는 범위가 두 면 영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인구 증가는 호조방죽의 축조 및 호조벌의 개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보통천 북쪽 지대에 있었던 두 면의 인구 증가율은 같은 시기 보통천 남쪽에 있었던 안산 초산면의 인구 증가율(34.9%)보다 낮았다.

이후 1910년에는 인천의 전체 인구가 4만 3,762명이 되어, 1789년에 비해 그 증가율이 200.4%에 달하였다. 이렇듯 인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19세기 후반 인천의 개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개항장과 멀리 떨어진 신고개면과 전반면 지역도 인구의 급증세가 확인된다. 1910년 기준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인구는 각각 2,316명과 1,725명이었다. 1789년 조사와 비교하면 신고개면은 1,303명에서 2,316명으로 77.7%, 전반면은 977명에서 1,725명으로 76.6%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안산 초산면

31 남촌면, 주안면, 조동면의 인구 증가율 역시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기재된 인구 수치를 활용해 계산하였다.

www.kci.go.kr

의 인구 증가율(26.4%)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인천 전체의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던 까닭에,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신고개면과 전반면 인구의 비중은 각각 8.9%와 6.7%(이상 1789년)에서 5.3%와 3.9%(이상 1910년)로 축소되었다.

한편, 안산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는 1759년 1만 90명에서 1789년에는 1만 1,926명으로 그 증가율이 18.2%에 달했다. 이후 1910년에는 2만 1,742명으로 조사되어 1789년의 1만 1,926명보다 꽤 큰 폭(82.3%)으로 늘어났다. 초산면의 경우, 1759년에는 1,548명으로 안산 전체 1만 90명 중에 15.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789년에는 2,088명으로 안산 전체 인구 1만 1,926명의 17.5%가 되었다. 두 시기 사이에 안산 전체 인구 중에서 초산면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매우 미미한 증가세였다.

그런데 1910년에는 초산면의 인구가 2,639명이 되어 안산군 전체 인구 2만 1,742명의 12.1%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다만 이는 1906년에 3개 면이 광주(廣州)에서 안산으로 소속이 바뀐 결과이다.[32] 안산으로 들어온 3개 면의 인구는 모두 7,500명으로, 안산의 전체 인구에서 이 인구수를 빼면 1만 4,242명이 된다. 이 1만 4,2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초산면의 인구 비중은 18.5%로 이전의 인구 비중과 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초산면의 1789년 인구 2,088명은 1759년 인구 1,548명에 비하여 34.9%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안산 전체 인구 증가율(18.2%)보다 월등히 높다. 이후 1910년 초산면의 인구는 2,639명으로 조사되어 1789년의 2,088명보다 26.4%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안산의 전체 증가율인 19.4%[33]보다

32 1906년에 광주에서 안산으로 편입된 3개 면은 성곶면(聲串面), 월곡면(月谷面), 북방면(北方面)인데, 『민적통계표』에는 월곡면이 하곡면(下谷面)으로 기재되었다. 『민적통계표』에 따르면, 성곶면에 3,131명, 북방면에 2,483명, 하곡면에 1,886명이 조사되었다.

33 19.4%는 1789년의 안산군 전체 인구 1만 1,926명에서 1910년의 전체 인구 1만 4,242명으로 증가한 비율이다. 이 1만 4,242명은 『민적통계표』에 기록된 1910년의 안산군 전체 인구 2만 1,742명에서 1906년에 광주로부터 안산으로 편입된 3개 면(성곶면·월곡면·북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21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감안할 때, 그 증가율이 아주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1759~1789년 사이에는 인천의 2개 면과 안산 초산면 모두 비교적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안산 초산면의 인구 증가율(34.9%)이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증가율(23.7%와 26.4%)보다 10% 정도 높았다. 그런데 1789~1910년 사이에는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의 인구 증가율(77.7%와 76.6%)이 안산 초산면의 증가율(26.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59~1910년 사이 호조벌 일대 3개 면 지역의 인구 변화 양상은 앞서 살펴본 같은 시기 동리의 증가 현상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3개 면 중에서 1759~1789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안산 초산면 지역의 경우, 같은 시기에 기존 동리의 분화를 통한 동리의 증가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앞에서 서술한 바에 따르면, 호조벌에 걸쳐 있는 초산면 내 직곶 지역에서는 기존의 동리가 상직곶리와 중직곶리, 하직곶리의 3개 동리로 나뉘었다가, 그중에서 하직곶리는 다시 하직곶상리, 하직곶중리, 하직곶하리의 3개 동리로 분화되었다. 이와 같은 동리의 분화는 호조방죽의 축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현상이었으나, 호조벌의 개간으로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인구의 급증과 맞물려 그 효과가 증폭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호조방죽의 축조를 통한 호조벌의 개간은 18세기 직곶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초산면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동리 분화를 함께 추동했던 물적 기반이 되었던 셈이다.[34] 초산면 지역에서는 이후 1789~1910년 사이에도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속도는 18세기보다 완만하였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초산면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동리의 증가세가 감소하였고, 증가한 동리들의 위치 역시 호조벌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방면)의 인구 7,500명을 제외한 수치이다.

34 초산면의 인구 증가를 호조벌의 개간과 관련지어 서술한 이상의 내용은 '정요근(2025), pp. 283-284'를 참조하였음.

www.kci.go.kr

확인되었다. 이는 초산면 지역에서 18세기에 인구 급증과 동리 증가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19세기에는 그 추세가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천 2개 면의 경우에는 1759~1789년 사이에 인구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가, 1789~191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동리 편제의 경우, 1789년에는 1곳 이상의 촌락명 동리를 묶은 서수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로 설정되었으나, 1871년과 1912년의 자료에서는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가 기본 편제 단위로 표기되면서 소속 동리의 숫자가 1789년 자료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즉 19세기에 들어 큰 폭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와 맞물려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동리 단위도 기존의 서수명 동리에서 그보다 좁은 범위인 촌락명 동리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 기본 편제 단위가 되는 동리의 숫자가 1789년보다 급증하였다.

인천 2개 면의 이와 같은 현상 역시 호조벌의 개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앞서 전반면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71년 자료와 1912년 자료의 전반면 소속 촌락명 동리 15곳의 절반 이상(1~5리 계열 10개 리)이 호조벌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신고개면에서도 역시 뚜렷한 동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호조벌 개간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인천 2개 면의 경우, 18세기 말 이후에 나타나는 인구의 폭증이 촌락의 증가 및 성장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의 급증과 동리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보통천 이북의 인천 2개 면과 보통천 이남의 안산 초산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안산 초산면 지역은 호조방죽이 축조되던 18세기에 이미 인구의 증가와 동리의 분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인천 2개 면 지역은 19세기가 되어서야 인구가 급증하고, 동리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이는 똑같이 호조벌의 범위에 있더라도, 보통천 이남과 이북 지역 사이에 본격적인 개간의 시기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보통천 남쪽 지역이 18세기에

www.kci.go.kr

먼저, 북쪽 지역이 나중 19세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기별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신고개면과 전반면 사이로 흐르는 은행천의 존재로 인하여, 호조방죽의 축조 이후에도 은행천 연변의 개간을 위해 인천 2개 면 지역에서는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어야 했을 가능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보통천 이북과 이남 지역의 인구 상황을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1759년과 1789년에 안산 초산면의 인구는 1,548명과 2,088명으로 인천 2개 면의 인구 합계 1,826명과 2,280명의 84.8%와 91.6%에 달했다. 즉, 18세기에는 안산 초산면의 인구가 인천 2개 면 인구의 합과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 1910년에는 안산 초산면의 인구가 2,639명으로 인천 2개 면의 인구 4,041명의 65.3%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19세기에도 초산면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했지만, 같은 시기 인천 2개 면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정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두 지역 간 시기별 인구 총합 비교를 통해서도, 안산 초산면에서는 18세기에 호조벌의 본격적인 개간이 진행되었고, 인천 2개 면은 19세기에 본격적인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720~1721년 사이에 인천과 안산 경계의 보통천 하구에 호조방죽이 축조되고 호조벌이 형성되면서, 그 주변 일대에서는 동리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구의 증가세는 앞서 살펴본 동리의 분화 및 신설 경향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즉 18세기에는 보통천 남쪽의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19세기에는 보통천 북쪽의 인천 2개 면 지역에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다만,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기간 전체를 놓고 총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안산 초산면보다는 인천 2개 면 지역의 성장세가 더욱 뚜렷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세기에는 인천 2개 면과 안산 초산면 사이의 인구수가 엇비슷했으나, 20세기 초반이 되면 인천 2개 면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www.kci.go.kr

4. 맺음말

본고는 조선 후기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던 지역에서 인구와 동리가 어떤 양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 지역은 현재의 경기도 시흥시 일대, 즉 조선시대 인천 신고개면과 전반면 그리고 안산 초산면 지역이다. 이 3개 면 지역은 18세기 초반 호조방죽의 축조를 통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이른바 '호조벌'이 조성되어 지역 경관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20세기 초반까지도 동리가 다수 늘어나고 인구가 급증하였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개 면 지역의 동리와 인구 변동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동리 증가의 경향과 양상, 늘어난 동리의 지리적 위치, 인구 증가의 시기별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동리 증가와 인구 증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보통천 이북의 인천 2개 면(신고개면과 전반면)과 보통천 이남의 안산 초산면 사이에는 동리의 분화 양상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 2개 면에서는 18세기에 서수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였으나, 시기가 내려오면서 서수명 동리는 기본 편제 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대신 촌락명 동리가 기본 편제 단위로 설정되었다. 인천 2개 면에 있던 서수명 동리는 1곳 또는 복수의 촌락명 동리를 결합하여 편제한 단위이다. 따라서 서수명 동리 대신 촌락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개별 촌락명 동리의 성장과 규모 확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그런데 인천 전반면에서 동리가 대거 신설 또는 분화된 곳들은 상당수가 호조벌에 걸쳐 있어서, 인천 2개 면의 동리 숫자 증가는 호조벌의 개간과 깊은 관련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 2개 면에서의 촌락명 동리 급증 현상은 1789~1871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 일대에서의 호조벌 개간이 19세기에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www.kci.go.kr

한편 보통천 남쪽의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서수명 동리보다 촌락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1789년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에도, 안산 초산면에서는 인천 2개 면과는 달리 촌락명 동리가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안산 초산면에서는 1789년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동리의 증가세가 비교적 완만하여, 1789년 이후 1912년까지 증가한 동리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즉 1789~1912년 사이에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는 동리의 분화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1789년 자료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안산 초산면 지역에서 동리의 분화가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는 이 지역에서 1720~1721년 호조방죽의 축조 이전부터 보통천 연변을 따라 소규모의 간척과 개간이 조금씩 이루어졌던 데다가, 호조방죽의 축조 이후 1789년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호조벌의 개간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구 증가의 측면에서도 인천 2개 면과 안산 초산면 사이의 시기별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안산 초산면에서는 18세기에 꽤 높은 비율로 인구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보통천 북쪽의 인천 2개 면 지역에서는 18세기에 인구 증가세가 완만하다가 1789년 이후, 즉 19세기에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통천 이북의 인천 2개 면과 보통천 이남의 안산 초산면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인구 급증의 시기별 차이는 두 지역 사이에 있었던 동리의 증가 양상과 일치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두 지역의 인구 급증 시기의 차이와는 별개로 18세기에는 안산 초산면과 인천 2개 면 사이의 인구 규모가 비슷했으나, 20세기 초반이 되면 인천 2개 면의 인구 규모는 안산 초산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안산 초산면 지역의 인구 증가세보다 인천 2개 면 지역의 인구 급증 효과가 훨씬 더 강력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인천과 안산의 경계 지대에 걸쳐 있었던 호조벌의 사례를

www.kci.go.kr

통하여, 간척을 통한 새로운 농경지의 개척이 해당 지역의 동리 및 인구의 증가와 어떤 관련성을 맺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가 서수명 동리에서 촌락명 동리로 변화하는 현상, 그리고 서수명 동리의 편제가 지리적 공통성을 가진 촌락명 동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면 하부의 기본 편제 단위인 동리에 대해서도 학계의 관심이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자료

「官報」(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京畿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民籍統計表』(국립중앙도서관)
『輿地圖書』
『安山郡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仁川府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朝鮮王朝實錄』
朝鮮總督府 編,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국립중앙도서관)
越智唯七 編(1917), 『新舊府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戶口摠數』
「晉允大土地賣買文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8068)
「崔正福土地賣買文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8073)
「張生員奴崔長福土地賣買文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8074)
『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국립중앙박물관)

논저

김한빛(2024), 「1910년대 초반 석장둔 인근 간척지 소유 양상」, 『인문논총』 8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병철(2019),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명 관련 자료집 편찬과 지명」, 『지명학』 30, 한국지명학회.
박선영(2019),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특징: 국내외 주요 소장처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1(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www.kci.go.kr

박선영(2021),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 국립중앙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3(2), 문화역사지리학회.
송양섭(2021), 「19세기 巨濟 舊助羅里의 부세운영과 촌락사회의 동향」, 『대동문화연구』 11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2007), 『시흥시사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경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편찬위원회 편(2007), 『시흥시사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경기: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편찬위원회(2011), 『안산시사 제1권: 자연과 역사』, 경기: 안산문화원.
이영호(2018), 『토지소유의 장기변동: 경기도 시흥 석장둔의 250년 역사』, 서울: 경인문화사.
이유진(2024), 「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노동력 동원을 둘러싼 현안과 갈등」, 『古文書研究』 65, 한국고문서학회.
이해준(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서울: 민족문화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2002), 『인천광역시사 제1권: 자연환경과 지리』, 경기: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정요근 외(2025), 『강희맹의 삶과 시흥』, 경기: 시흥문화원.

원고 접수일: 2025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2월 3일, 게재 확정일: 2025년 2월 25일

www.kci.go.kr

ABSTRACT

Patterns of Administrative Units (Dong-ni) and Population Growth in the Hojobeol Area in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Jung, Dahye*

Jeong, Yokeun**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area now known as Siheung City in Gyeonggi Province was transformed by a large-scale, state-led land reclamation project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the Hojo Bank. Originally, this area was characterized by extensive tidal flats, but with the building of the embankment and the expansion of farmland, the number of villages increased significantly, along with a rapid population growth. In the late 18th centu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ojobeol area — specifically in the regions of Singogae-myeon and Jeonban-myeon in Incheon — administrative units referred to as "ordinary number-based units" (序數名 洞里), each comprising more than one village, served as the basic administrative units under the myeon (township) level. However, by the late 19th century, the importance of Seosumyeong dong-ni ordinar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www.kci.go.kr

number-based units declined, and village-based units (dong-ni) became the primary administrative divisions, leading to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affiliated villages.

Meanwhile, in the Chosan-myeon area of Ansan, located south of Hojobeol, a significant increase in population and village division had already occurred before the late 18th century. In comparison, two myeon regions in northern Incheon only began to see substantial village growth and population increase in the 19th century. These temporal changes in village structure and population show that the land reclamation of Hojoeol began in earnest in the Ansan Chosan-myeon area during the 18th century, whereas it became active later — in the 19th century — in the Incheon region. This study holds important significance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population and village growth unfolded in regions where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were carried ou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Siheung, Incheon, Ansan, Hojobeol, Land Reclamation

www.kci.go.kr

www.kci.go.kr